

판 커진 재보선...당권레이스 돌발 변수로

이낙연 "당권 원주 틀 묶여 권력투쟁 부각 국민과 동떨어져" 김부겸 "보선, 대선급 커졌는데 내년 3월 사퇴할 수 있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낙마로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의원의 김부겸 전 의원의 당권 행보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들 후보군은 추모 분위기 속에서 언론사 인터뷰와 외부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사퇴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등 재보궐선거의 몸집이 커지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의 위상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유력 대권주자인 이 의원이 '당권 장악 후 대권 도전'을 이어갈 것인지와 김 전 의원의 '(이 의원의)대권 출마를 위한 조기 당 대표 사퇴 무책임론'이 힘을 얻을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박 시장 여파가 민주당 전당대회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외부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하루 4~7곳의 언론사와의 인터뷰 일정을 소화하고, 의원 개별 접촉 등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지난 10일 이후 외부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김 전 의원도 지난 9일 출마선언 뒤 경기도, 부산시, 울산시 등을 도는 일정을 계획했지만 추모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 외부 일정을 취소하거나 줄였다.

정가에서는 박 시장의 사망 파문으로

민주당에 대한 일시적인 지지를 하락과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장악하거나 대권 도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칫 전당대회 관심이 떨어지면 컨벤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뽑아야 하는

재보궐선거의 몸집이 커진 것도 당권주자로서는 부담이다. 당 대표의 장점은 사라진 채 자칫, 당 대표가 재보궐선거의 책임을 져야 하는 가시방석이 된 셈이다. 또 21대 원 구성 과정에서 불만이 쌓인 야권의 계속되는 파상공세 속에서 박 시장의 성추문 의혹에 대한 공격 빌미까지 남아 있다는 점도 향후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권 주자로서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들 당권 주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 후 당권 레이스를 재개한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책임있는 당의 쇄신이

없다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국민이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김 전 의원을 겨냥해 "당권 원주의 틀에 묶여 권력투쟁을 하려는 측면이 부각되면 국민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통합당은 서울시장 사퇴 부담이 없는 만큼, 대선주자가 보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보선이 대선급으로 커졌는데, 내년 3월 당대표직을 그만둘 수 있을까"라고 이 의원을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재난안전대책회의 주재하는 정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문 정국' 갈등 깊어지는 여야

박원순·백선엽 사망 입장 엇갈려

진보와 보수의 상징같은 인물인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백선엽 장군의 사망으로 여야의 '조문 정국'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박 시장의 빈소를 찾지 않겠다는 정치인이 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葬)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고인에 대한 추모가 우선이라는 분위기 속에 주요 입자들이 조문 행렬에 동참했다.

전날 김선주 경남지사는 빈소에서 "피해자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박 시장의 업적 또한 추모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취재진으로부터 고인의 성추행 의혹을 질문받자 "예의가 아니다"라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

반면, 야권은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

우려를 감안해 무조건적 '에도 모드'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빈소 조문을 보류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의원이 박 시장 고소인에 대한 연대를 표하면서 조문 거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별세한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놓고는 통합당과 다른 당으로 나눠 대립하고 있다.

통합당은 백 장군 공적을 고려해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의당은 현충원 안장 자체에 반대한다.

최근 별세한 백선엽 장군의 한국전쟁 당시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친일 행적을 고려해 공식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서 '친일파 파묘'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개별 의원들의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구심점 잃은 박원순계...각자도생? 연대?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른바 '박원순계 인사'들도 박 서울시장의 죽음에 따라 혼란에 빠졌다. 당내에서 향후 전당대회와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거치며 이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계파로 흩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느슨한 연대를 유지한 채 향후 서울시장 보선 등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박원순계는 지난 총선에서 박홍근·남인순·기동민·진성준 의원 등 측근들을 필두로 크게 약진하며 세를 불렀다. 김원아·민병덕·윤준병·전준호·허영 의원 등 측근들

이 대거 가세하며 세가 20명까지 불어났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박 시장의 사망으로 줄지어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한 관계자는 12일 "박원순계는 서로의 인연보다는, 박 시장 한 명에 대한 의리로 모여있던 집단"이라며 "앞으로 전대와 대선 국면에서 인재영입이 절실한 주자들이 이들을 적극 포섭하며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이 박 시장의 궤위로 1년여 앞당겨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선에서 집단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1년 앞당겨진 서울시장 보선 후보 벌써 '하마평'

與 박영선·우상호·임종석·박주민, 野 나경원·홍정욱·김세연 거론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4월7일 치러질 보궐선거 후보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박원순 시장이 이미 3선을 채워 2022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던 터였으나, 선거가 1년여 앞당겨지게 되면서 출마를 염두에 둔 이들의 행보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12일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2011년 야권 후보단일화 경선과 2018년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패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박 장관이 4·15 총선에 불출마하고 내각 잔류를 택한 것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역시 2018년 경선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86그룹 만행으로서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총선 출마 대신 입장을 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 시장과 함께 서울시장 무부시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2011년 무상급식 논란으로 시장직을 던진 데다, 바로 보궐선거 당선자가 박 시장이란 원죄 때문에 대선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대선 잠룡으로 분류되는 홍정욱 전 의원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딸의 마약 사건이 걸릴대로 작용할 수 있다. 현역 의원 중에는 4선의 권영세(서울 용산)·박진(서울 강남)의 이름이 불명이다.

당내에서 부산시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김세연 전 의원의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이 주목하는 이가 많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자질을 강조하는 '경제적 식견을 갖춘 40대'로 인식되는 까닭이다.

2011년, 2018년 서울시장에 잇따라 도전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역시 대권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민주당-호남권 3개 시·도 예산정책협

13일→23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2일 "13일 국회에서 개최 예정이던 더불어민주당과 호남권 3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는 23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당 대표, 김태원 원내대표,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정인 민주당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도당을 비롯한 호남권 3개 시·도는 주요 현안 사업과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심사 과정에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주철현 포기...민주 도당위원장 김승남·신정훈 2파전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남도당 위원장직 도전 의사를 밝혔던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당에 대한 정체성과 충성심, 입당 기간, 지역위원장·시장 등 다양한 정치활동을 기반으로, 하나 된 전남을 만들어 호남 중심의 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싶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지역 정치권은 전반기 도당 위원장 임기인 2022년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차기 지방선거의 경우 이전과는 달리,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공천이 시·도당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기 도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으로 갈 경우 8월 8일 전남도당 개편대회(대의원대회) 전 후보 등록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815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